

본회, 「양돈장 시설개선 및

— 제임스 바커 교수 초빙, 8월 28일 유성,

취재 : 이상길 기자

본회는 지난 8월 28일과 9월 1일, 9월 3일 3일에 걸쳐 미국사료곡물협회(USFGC, 한국회장 : 박영인)의 후원으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제임스 바커(James Barker)교수를 초빙, 「양돈장 시설개선 및 환경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8월 28일 유성 프린세스호텔, 9월 1일 마산 한우예식장, 9월 3일 서울 양돈회관에서 각각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본회 회원농가 및 일반 양축가, 시설·기자재업체 관계자, 사료회사 직원 등이 대거 참석, 양돈장의 시설과 환경관리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정부에서 수입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자동화 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축농가에서 축사건축에 대한 기술부족으로 자동화 설치와 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개최돼 본회 회원들은 물론 양축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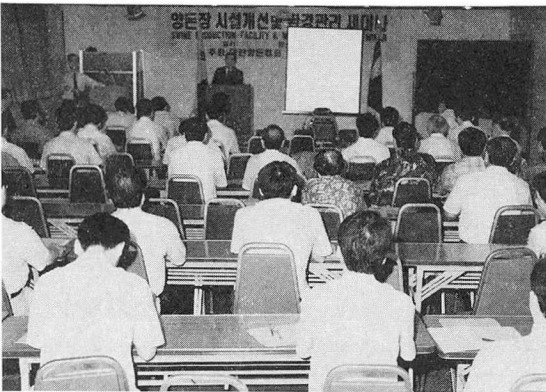
8월 28일에는 대전, 9월 1일에는 마산 등 중부와 남부지역을 거쳐 9월 3일에는 양돈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매일 1백여명 이상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양돈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9월 3일의 세미나에 참석한 본회 전동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일본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에서 냉장육을 수입하는 양이 급격히 증가중이고 우리나라도 '94년부터는 냉장육이 수입개방 되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수입개방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입육과 원가면에서 경쟁하려면 시설개선을 통한 성력화와 함께 관련세제, 유통구조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 『마침 이러한 때 미국 사료곡물협회 주선으로 바커교수를 초빙해 세미나를 갖게 돼 2중3중으로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양돈농가들의 고충을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관리 세미나」 개최

9월 1일 마산, 9월 3일 양돈회관 등 3곳서—



미국사료곡물협회 계경성부장의 동시통역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바커교수는 농장 위치 선정시 생산자재 확보, 돼지의 판매, 분뇨처리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농장설비의 경우 노동력과 직결되는 동시에 관리체계의 결정요소가 되므로 중요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돈사의 경우 바닥철망을 코팅, 위생성을 향상시켜야 하고, 우리와 우리사이는 철사로 구분, 시멘트일 때 보다 공기유통을 개선시킬 것을 제안했다.

바커교수는 또 임신돈사에 관해 언급, 윈치커텐에 의한 환기를 강조하고 부분 슬랏을 설치시 호흡기 질병이 증가한다고 지적, 전체슬랏을 설

치하고 칸막이는 철근으로 띄워 놓을 것을 권장했다.

한편 슬러리돈사의 경우 통로쪽에 공기구멍을 두고, 분뇨를 오래 저장 할 때 생기는 가스발생방지를 위해 피트 깊이를 50~120cm로 하며, 발효건조장치는 수분조절이 중요하므로 습식급이기를 사용토록 할 것 등을 조언했다.

특히 바커교수는 슬러리시스템 돈사의 경우 저장된 분뇨를 최소한 1주일에 1회정도 배출시키는 것이 가스발생을 감소시키고 공기 청정도를 유지시켜 주며, 가스로 인한 시설장비 부식을 막아줘 유리하다고 밝혔다.

바커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슬라이드를 통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3일간의 세미나중 참석자들의 많은 질문공세가 쏟아져 나와 돈사시설과 환경관리에 이렇다 할 연구실적이나 현장의 노하우가 거의 없는 우리 양축가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한편 이번 바커교수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나라 시설·기자재업체나 각 양돈장에서도 시설 및 환경관리 개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게 될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많은 기술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實影**